나주 도래마을, 한옥마을로 변신중

市, 2012년까지 72억원 투입…다목적 체험관 등 조성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도래마을이 전통 한옥마을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72억1천만원을 투입해 16만㎡에 '나주 도래 전통마을 조성사업'〈조감도〉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비롯해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다목적 체험관 건립, 돌담·빨래터 복원, 산책로 조성 등이다.

시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도래마을에 역사·문화·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과 문화체험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옥 민박 15동과 주차장, 방문객 센터 등이 이미 조성됐고 최근 다목적 체험관(130여㎡) 상량식을 가졌다.

다목적체험관은 단체 민박이나 세미나 등도 가능하고 이용객이 없을 땐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이용된다.

앞으로 마을 안에 있는 전봇대는 모두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작업이 추진되며 마을 진입로 정비, 가로등 설치, 빨래터 복원과 함께 생태숲, 산책로, 돌담길, 연못 등도 조성된다.

시는 2014년까지 2단계로 인근 폐교를 매입, 전통 및 농경문화 체험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체험관에는 전국 향토 음식문화관, 농경문화 전시체험관, 전통혼례와 예절 및 다도교육 등을 직접 해보는 전통문화체험관, 역사 인물관 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또 시는 방문객을 위한 도래옛집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래 전통마을은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고향과 삶의 여유를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나주를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도래마을은 홍기응 가옥(중요민속자료 151호), 홍기헌 가옥(중요민속자료 165호), 홍기창 가옥(민속자료 9호) 등 고풍스러운 옛 한옥과 문화자산을 보유한 마을이다.

지난 2006년 (사)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국민신탁)'는 1930년대 건립된 도래마을 한옥 한채를 매입해 '시민 유산 제4호'로 선정, 복원작업을 벌였다.

조선 중종때 풍산홍씨 홍한의가 기묘사화를 피해 정착하면서 풍산홍씨 집성촌(62호)이 됐으며, 현재는 191가구 366명이 거주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뮤지컬 '홍길동' 내일 막 오른다

서울 올림픽공원서 첫 공연…2개월 대장정

장성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뮤지컬 '홍길동'이 무대에 오른다.

장성군에 따르면 18일 밤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구 역도경기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 오는 4월 18일까지 두 달간 총 81회 공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공연 관계자, 평론가, 기자 등 1천명을 초청해 뮤지컬 '홍길동' 시연회를 갖는다.

이번 시연회에는 홍길동 역에 슈퍼주니어의 예성, 배수진 역에 안유진씨가 맡아 50여 명의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멋진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인공인 홍길동 역에 예성, 성민, 조범준, 여운 등 4명이 공연 일정에 맞춰 4인 4색의 연기를 펼쳐 동일 작품속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표현할 예정이다.

뮤지컬 '홍길동'은 기존에 흔히 봤던 홍길동의 재주와 모험을 다룬 내용이 아닌 활빈당 활약 이후를 배경으로 한 인간 홍길동의 사랑과 고뇌를 다룬다. 무대에는 관객들의 작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묵담채기법으로 표현한 무대배경 영상을 비롯해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특수효과도 등장할 예정이다.

또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살풀이춤, 칼춤 등 한국무용과 조화를 이뤄 극적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뮤지컬 '홍길동'은 홍길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장성군이 주최하고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작을 맡은 민·관 합작 뮤지컬로 총 25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등불장학금' 주인공 찾아요

담양군 내달 3일까지 읍·면 추천·접수

담양군이 지난해 7월 익명의 독지가가 토마토 상자에 넣어 맡긴 2억원으로 조성한 '등불 장학금'의 첫 수혜자를 찾는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는 올해 담양장학회와 등불장학금 지원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12개 읍·면 사무소에서 대상자 추천·접수를 받는다.

등불장학금은 '소방대원의 자녀를 도와 달라'는 독지가의 뜻대로 지역에서 7년 이상 거주, 경력 5년 이상 군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장학회는 이와 별도로 지역에 7년 이상 주소나 본적을 둔 군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대학생과 시·도 단위 대회 우승, 전국대회 입상 등 경력이 있는 예체능 특기자도 지원한다.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 장학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1가정에서 2명이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장학회는 학업성적과 재산 등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이전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문의(061-380-3038)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화순군 공원 정비 확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화순군이 가족단위 여가선용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2억원을 들여 화순읍 미륭아파트 옆 어린이 놀이공원을 현대감각에 어울리고 안전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군은 기존에 있던 그네와 시소 등 노후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조합놀이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놀이시설로 교체한다.

놀이시설 바닥면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탄성 포장재로 바꿔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배려한다.

화순군은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남산공원 및 부처샘공원 등 도시공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광덕 제1공원을 정비하고, 2008년에는 신기 제1공원을 정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고향 쌀 맛보세요" 나주시는 설연휴 기간중 나주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소포장(1㎏) 쌀을 나눠주며 친환경 나주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나주시가 증정한 동강농협 '드림생미'와 남평농협 '왕건이 탐낸 쌀'은 전국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에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강진군, 벼 육묘용 상토 전액 지원

강진군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床土) 구입비용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

강진군은 올해 군비 9억7천400만원을 확보해 관내 6천262농가(9천950ha)에 오는 23일부터 '지역사랑 상토 구입권'을 지급한다.

상토구입권은 0.1ha용 9천원권, 0.5h용 4만5천원권, 1ha용 9만원권 등 3종류 2만3천여장으로 경작면적에 따라 농가에 지급된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대상 농가는 관내 농자재 판매업체를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오는 4월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강진군은 지난 2006년 전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모판흙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는 한 가구당 3ha로 한정해 추진해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목사골 주말은 예술로 들썩 거린다

'나주목문예단' 내달부터 매주 무료공연

나주시는 "오는 3월부터 매주 주말에 '나주목(牧) 문화예술단'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공연을 위해 최근 관내 6개 예술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2010년 '역사재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칭 '나주목문화예술단'을 구성했다.

예술단 단장에는 현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지휘자인 김기종씨를, 사무국장에는 나주시 상가번영회 사무국장 나두현씨를 각각 선출했다.

나주목 문화예술단에는 삼현육각연주단과 연극협회, 여성유도회와 상가연합회, 국악협회와 청년회의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역사재현 프로그램은 3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에 금성관과 정수루, 목사 내아와 망화루 등지를 돌며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주목사 부임행차, 수문장 교대의식, 전통혼례, 나주목사 송사재현, 전통장터 재현, 국악 및 삼현육각 공연 등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단은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 금성관 주변 부설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해서 나주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光州日報 전남중부취재본부
광산 강진 나주 담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본 부 장 김용기
기원태 국장
최승렬 부장
이상휴 차장
정칠현 기자
남철희 기자
정운수 기자
김용호 기자
노정훈 기자